

→
‘메세’의 나라 독일을 배운다
 <박람회> Deutsche Messe

박람회의 모든 것 하노버로 통한다

2 세계 최대 하노버 박람회장

한때 중세의 왕국을 일궈낸 독일 북부의 도시 하노버는 현재 니더작센주의 주도(州都)다. 인구 50만명을 조금 넘기는 이 도시에 해마다 200만명이 가까운 손님들이 다녀간다.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특별히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 하노버를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박람회다.

▷전후(戰後) 재건사업
 하노버가 박람회 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의 거의 모든 곳이 그랬지만, 특히 하노버는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됐다. 하노버의 재건을 맡은 영국 군부는 도시 경제를 일으킬 방법으로 박람회장 건립을 추진했다.

도시 외곽에 있던 군용 비행기 공장의 넓은 부지를 박람회장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1947년의 일이다. 라이프치히 등 독일 내 몇몇 도시에서 열리는 메세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것에 비하면, 하노버는 이제 갖(?) 60년을 넘겼을 뿐이지만 내·외적 규모에서 다른 도시들을 압도한다.

군용 비행기 공장 활용... 일산 킨텍스의 9.3배 크기

‘세빗’ 등 세계 규모 대회 주관...해마다 200만명 찾아

니더작센주 경제·노동·운송부 박람회 담당 공무원 오토 마르 폰 홀츠씨는 “지역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오늘의 하노버를 있게 한 것 같다”며 “박람회의 경제 유발 효과는 도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자랑
 통계만 보더라도 하노버 박람회의 위상은 세계적이다. 전시면적이 49만5천265㎡로 세계 2번째인 밀라노 박람회장(34만5천㎡)보다 훨씬 넓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5만3천541㎡의 9.3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9천72㎡의 54.6배다.

동시에 5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특히 대형 박람회가 열릴 때면 독일의 초고속열차(ICE)가 박람회장 안에 정차한다.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지난해 하노버 박람회에서는 57개 박람회에 2만5천34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외국 업체 수가 절반에 가까운 1만1천416개였다.

▷세계화로 제2 도약
 하노버 박람회장 운영은 지자체와 독립·운영되는 유한회사 ‘도이치 메세’가 맡고 있다. 하노버시와 니더작센주가 절반씩 부담해 회사를 열었지만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다. 도이치 메세는 단순히 박람회장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박람회를 직접 개최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하노버 메세’로 알려진 하노버 산업박람회(매년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세빗(CeBIT)’(매년 3월) 등을 주관한다. 두 박람회 참가업체 수가 연간 하노버를 찾는 업체의 절반인 1만2천여개에 달한다. 직원수는 860여명으로 전세계 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도이치 메세는 박람회의 엄청난 산업적 가치에 주목한 여러 국가들이 뛰어들면서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얻었다. 도이치 메세는 개최하면서 전환점을 건립했고, 세계화에 눈시야’ 등 하노버에서 드를 이용해 다른 나고 있는 것이다. 도 4천416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99만명의 손님을 끌어모았다.

/하노버=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도이치 메세’ 홍보담당 모니카 브란트씨



“산업박람회 등 유명 박람회 직접 운영”

“도이치 메세는 ‘메세의 어머니’ 역할을 하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하노버 박람회장 운영을 하며, 세빗이나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같은 굵직한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는 ‘도이치 메세’ 홍보 담당자 모니카 브란트씨의 말이다.

브란트씨는 “도이치 메세라는 이름이 일단 상징적이다. ‘독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베를린처럼 수도에 위치할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이치 메세는 하노버 산(產)이다”고 말했다.

도이치 메세 라이프치히나 쾰른 등 다른 도시의 박람회 운영 기관에 비해 더 오래 됐기 때문에 ‘어머니’로 불리는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발했지만 선진적인 운영으로 모범을 보였다.

브란트씨는 “전문 박람회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본다”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하노버 박람회에 참석

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처진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력이 독보적인 세빗이나 하노버 산업박람회, 목재박람회 등은 모두 ‘도이치 메세’가 직접 운영한다.

“세계 각 지역에서 세빗의 지역 박람회를 열게 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고 생각되는 곳에는 단호하게 거부하죠.”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세빗’→‘세빗’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

성장 가능성 염두한 탁월한 용어 선택



정보통신 관련자 뿐 아니라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열리 어머니나 휴대전화와 각종 전자기기 마니아라면 누구든 한 번쯤 들어봤을 세빗(CeBIT·사진). 그런데 이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흥미롭다.

대회 명칭 속에 포함된 단어 ‘BIT’에서 컴퓨터 용어 중 하나인 비트(Byte)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도박이었고, 결과적으로 도박은 멋들어지게 성공했다.

세빗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85년. 세빗을 풀어쓰면, ‘Centrum der Büro und Informationstechnik’이다. 사무 정보통신 기술의 중심 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를 창립하면서 먼저 고려된 단어는 ‘Information’이 아니라 사무자동화 기기의 의미를 담은 ‘Organisation’이었다.

당시는 컴퓨터에 대한 기반이 지금처럼 광범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자동화 기술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왜 ‘Information’으로 바뀌었을까.

정보통신 기술의 성장 가능성이 사무자동화 기기보다 더 무한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세빗은 컴퓨터의 일반화와 함께 일상화된 단어 ‘비트’를 연상시키며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첫 박람회 개최 전 한 동안 불렸던 행사 명칭, ‘세빗(CeBOT)’은 이렇게 햇빛도 못 보고 자취를 감춘다.



하노버 시내에서 자동차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하노버 박람회장은 전경, 세계 최대 규모로 국내 최대인 일산 킨텍스의 9.3배 넓이이자 축구장 면적의 69.4배에 달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더우시죠? 지치고 피로하시죠?

무더위와 자외선이 강해질수록 항산화제 보강, 아로나민씨플러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감인 자외선으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여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비타민D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D,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를 보강한 아로나민씨플러스는 발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제 보강 - 종합비타민 아로나민씨플러스

- 항산화제 보강: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 영양학적 보강
- 피로, 눈대 피로, 수면·수면 개선

항산화제 보강 - 종합비타민 아로나민씨플러스

- 흡수력 높여주는 활성비타민 B1(B2, B6와 비타민D, E
- 피로, 신경통, 관절염, 병후·병후 회복에

**건강이
개선됩니다!**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

문의: 02-522-1010 | www.aronamin.com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
▶ **아로나민씨플러스**는 약국·식품회사와